

양부남 vs 강위원...민주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 본격 점화

‘현역’ 양, 출마 선언 후보 등록 ‘당원중심 운영’

‘원의’ 강, 선대위 출범 비전 선포식 열어 ‘맞붙’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가 현역 양부남 국회의원과(서구을)과 원외 인사인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 간 양자 대결로 본격 점화했다.



양부남



강위원

양부남 국회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원중심, 지역중심의 광주시당 운영을 통해 지방선거 압승과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겠다”며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양 의원은 “대한민국은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다”며 “지난 총선 참패에도 불통으로 일관하는 정치 현실과 무너진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광주시당의 변화를 위한 운영 방향으로 ▲당원 중심의 시장 운영으로 광주에서부터 ‘당원주권’ 실현 ▲현장 중심의 시장 운영으로 광주시민 ‘신뢰 회복’ ▲사람 중심의 시장 운영으로 ‘광주(호남) 정치 복원’ ▲정책 중심

의 시장 운영으로 지역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광주발전’ ▲광주의 8개 지역 위원장이 함께 운영하는 ‘혁신과 통합의 광주시당’을 약속했다.

그는 “어둡고 암울한 역사의 순간마다 등불이 됐던 광주의 정신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밝히는 희망의 등대가 돼야 할 때”라며 “위대한 광주의 여정을 광주시민, 당원동지 여러분과 함께 가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맞서 강위원 상임대표도 이날 광주시당에서 선대위 출범과 함께 비전선포식을 열고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 강 상임대표는 선대위를 ‘혁신돌풍’으로 명명했다.

그는 “당원 주권시대, 광주시당에 필요한 리더십은 11만 권리당원과 140만 시민을 섬기는 리더십”이라며 “당원 중심 광주시당 운영의 모습을 선대위 구성부터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강 상임대표는 “당원과 대의원, 지방의원 과 기초단체장 위에 군림하던 ‘국회의원 중심 봉건영주 시대’를 끝내고, 주권자인 당원과 시민을 존엄하게 예우하고 그들의 뜻을 모아 결정하고 집행하는 진정한 ‘당원 중심 대중 정당 시대’, ‘민주와 공화’의 시대’를 열

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위원장 후보를 현장 접수한 뒤 오는 8월 2-3일 권리당원 ARS 투표, 4일에는 전국 대의원 현장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광주시당 위원

장 선거 결과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연결된 만큼 초미의 관심사”라며 “그동안 원내인 국회의원들이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원외 인사가 민주당 내 최대 계파의 수장인 만큼 치열한 선거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박선경기자



시의회 5·18모지 참배 신수정 의장 등 광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단들이 22일 오전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하고 있다. 이날 시의회는 후반기 개원을 맞아 5·18민주묘지를 비롯해 광주독립운동기념탑, 현충탑, 4·19의거 희생영령추모비 등을 참배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금지사, 운수조합 등과 교통안전 현안 논의

전남교통연수원서 유관협회 등 간담회...선진 교통문화 다짐

김영록 전남지사는 22일 오전 전남교통연수원을 방문,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전남 6개 운수조합·협회 기관과 함께 전남지역 교통 안전 현안을 논의했다.

전남교통연수원은 1988년 개원해 2015년 강진 성전면으로 이전했다. 올해 6만여명(운수종사자 교육 2만3천명, 도민 교육 2만명, 안전교육종합체 합관 1만5천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날 송경태 전남교통연수원 이사장은 6개 운수 조합·협회 기관장을 대표해 “운수업계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해 전남교통연수원을 직접 찾아 준 김영록 지사에게 감사드린다”며 “전남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김영록 지사와 전남교통연수원 임직원은 도내 교통 안전 현안을 논의하고 원내 시설을 함께 시찰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의 교통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연수원과 각 운수업계의 노고를 치하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도민의 따뜻한 손과 발이 돼 주는 운수업계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업계에서 건의한 내용에 따라 전남 운수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긴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희 전남교통연수원장은 “전남 교통 안전의 미래를 위해 지역 운수기관과 적극 협력하는 등 ‘민선 8기 전남 교통안전 시책’ 완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강기정·홍준표, 스포츠로 뭉쳤다

대구서 K리그 광주FC-대구FC 경기 관람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번엔 스포츠로 뭉쳤다.

강 시장과 홍 시장은 지난 21일 오후 대구시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K리그 ‘광주FC-대구FC 축구 경기’를 관람했다. 양 시장이 스포츠 경기를 함께 관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시장은 민선 8기 2년여 만에 십수 년 답보 상태였던 군공항이전특별법·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라는 결실을 거두며 ‘달빛동맹’을 지역 발전 교두보로 삼았다. 특히 민선 8기에는 친선·우호 교류를 넘어 특별법 통과와 같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남부거대 경제권 조성을 함께 추진해 ‘산업동맹’으로까지 확장했다.

이날 강 시장은 광주FC 원정팬들을 응원하기 위해 원정석을 직접 찾아 인사하고 “광주FC를 변함없이 사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강 시장은 이날 경기 관람에 앞서 대구 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인 대구 군위군을 찾았다. 김진열 군위군수를 만나 최종 이전지 선정, 주민 설득 과정, 주민 지원책, 접근 교통망 등을 논의했다.

또 공항 조성 현장을 찾아 시설 배치 계획 등을 살펴봤다.

/박선경 기자

중견 문화콘텐츠기업 ‘큐로드’ 광주에 등지

市와 업무협약...내년까지 100명 채용

광주시가 수도권 중견 문화 콘텐츠 기업을 유치했다.

광주시는 22일 전일빌딩255 다목적 강당에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큐로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강기정 시장, (주)큐로드 길호웅 대표이사, 김형준 광주지사장, (주)큐로드 자회사인 발렌타인드림 윤성우 대표이사, 엔코라인 김기돈 대표이사, 이경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자리한 (주)큐로드는 전일빌딩255에 광주지사를 설립했다.

(주)큐로드는 게임 품질관리(QA: Quality Assurance)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자회사 포함 연 매출 264억8천만원, 직원 409명의 중견기업이다. 특히 (주)큐로드는 협약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지역 인재 100명 이상을 채용할 것을 약속했다.

강기정 시장은 “기업과 청년이 함께 무럭무럭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광주 문화콘텐츠산업을 활짝 꽃피우고 대한민국의 문화콘텐츠산업을 이끄는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박선경 기자



Worldwide Partner



PARIS 2024 PARIS 2024

PARIS 2024 공식 스폰서 안마의자

REAL PRO MAN1

파리 항공권 증정 대한민국 승리기원 EVENT

기간: 2024.06.28 ~ 2024.08.11



EP-MAN1 (아이보리)



1 MAN1 구매고객 전원 증정

- 50만원 할인
- 20만원 상품권 + 무선 청소기 WDD91 증정




2 MAN1 구매고객 추첨 증정

1등

파리 항공권 티켓 2매

1명

2등

헤어드라이어 EH-NOJ

10명

※이벤트 상세내용 www.panasonic.kr/event 참조

파나소닉 프라자

062)522-2000

파나소닉 금호월드점

062)350-8397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 1층 139호